

## ◆ 북미

- 美 대형 보험회사, 자동차보험료 인상
- 재무상담사, 설계사, 금융기관 등의 생명보험업무 아웃소싱 활발

## ◆ 유럽

- 무디스, 유럽보험회사의 기본적인 사업 실적은 견실한 수준이라 발표
- 보험회사들 베이징 올림픽에서 런던 올림픽으로 주목

## ◆ 일본

- 일본 지진보험 가입률 전국 평균 44%
- 미츠이스미토모해상, 베트남에서 단독 손해보험회사 설립
- 상위 4개 생보사 실적 감소는 사망보장 니즈 감소 탓

## ◆ 중국

- 중국, 보험업 개정안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
- 중국 보감위, '방카슈랑스 성장 속도 과도하게 빠르다' 주의 요망

##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 美 대형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인상

- 미국의 주요 대형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
  - 휘발유 값 인상이 자동차 운행 패턴을 변화시켜 주행거리를 줄이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랐으나 이러한 사고 감소가 자동차 보험료의 변동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주요 대형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시장의 시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이들 보험사는 주유비의 인상과 관계없이 최근 몇 년간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자동차사고 손해액 증가율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 미국의 주요 대형보험사 중 하나로서 약 3백만의 보험계약자를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트 팜(State Farm)은 10월 27일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4% 인상하겠다고 감독당국에 통보
  - 스테이트 팜의 대변인인 케빈 데이비스에 따르면 이번의 자동차 보험료 조정은 개인별로 볼 때 최대 10% 인상될 수 있으며, 최대 10%가 인하될 수도 있다고 언급
- 약 69만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Allstate Indemnity社는 7월말까지 자동차보험료를 일률적으로 3.6%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약 43만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Allstate County Mutual도 5.5%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
- 텍사스주 보험감독청 대변인인 제리 하긴스는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과거의 자동차보험 평균보험료가 오랜 기간 낮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상압력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발표

(Chron.com, 8/19)

## □ 재무상담사, 설계사, 금융기관의 생명보험업무 아웃소싱 활발

- 재무상담사, 설계사, 금융기관 등은 향후 생명보험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해 신속히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됨.
  - 보험료 산정, 일반 업무처리, 보험증권 배송 등 생명보험에 대한 제반 업무에 대한 아웃 소싱이 가능해짐.
- ‘퀵 라이프’는 소비자인 설계사 및 금융기관의 개별적 요청을 감안하여 맞춤형 생명보험업무 아웃소싱을 제공
  - 예를 들어 초기 요율 책정부터 적용까지, 보험인수에 대한 승인과 증권 발급까지 등의 일반 보험업무 처리를 대행해 줌.
- 퀵 라이프 사장인 팻 웨데킹에 따르면 “생명보험 아웃소싱은 보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구축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초 투자를 생략하고 업무의 중점을 세일즈에 두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이윤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서비스는 단순하면서도 보안을 최우선시 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는 업무”라고 언급
- 생명보험 아웃소싱은 설계사가 고객을 만나는 순간부터 제공됨.
  - 설계사가 고객의 일반 정보를 퀵 라이프 웹 포털에 입력하게 되면 퀵 라이프는 인수에 관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다시 설계사에게 피드백 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유지
  - 전자 보험요율 산정, 전자 보험계약서 작성, 전자서명, 구비서류 징구 및 정보요청, 질의에 대한 맞춤형 응답, 최종 요율확인, 증권 배송 등의 서비스가 포함됨.

(Insurance News Net, 8/21)

##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 무디스, 유럽보험회사의 기본적인 사업 실적은 견실한 수준이라 발표

- 이번 주 무디스(Mood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보험회사들의 저조한 사업성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기본적인 실적(underlying performance)은 여전히 견실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전함.
  - 2008년 상반기 보험회사 실적 평가에 대해 신용평가 기관들은 보험 산업이 상대적으로 견실한 수준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보험회사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것을 면하게 되었다고 덧붙임.
- 무디스의 신용평가 선임사무관인 도미닉 심슨(Dominic Simpson)은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 투자가로서 유럽의 보험회사들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같은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추세를 보인다고 전함.
  - 물론, 모든 그룹이 이러한 환경에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채권과 주식가치가 하락한 2008년 상반기 실적에 있어서는 수익이나 자본 등 대부분의 영역에 큰 충격을 받는다고 덧붙임.
- 따라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낮은 투자수익 성과를 배제한다면, 2008년 상반기 유럽의 주요 보험회사와 재보험사의 생명 및 손해보험에서 기본적인 사업실적(underlying performance)은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음.
  - 무디스는 이러한 보험회사의 실적이 다른 금융기관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자본시장의 움직임에 있어 보험회사의 자산 가치를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상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임.

(Insurance Times, 8/21)

## □ 보험회사들 베이징 올림픽에서 런던 올림픽으로 주목

- Insurance News Net에 따르면,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개막과 함께 국가별 응원단은 올림픽 기간 동안 사고 발생에 대해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수많은 브로커들을 비롯한 언더라이터, 보험회사, 재보험사가 2008년 올림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전함.
  -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보인 대규모 행사들이 시청자들을 비롯한 언론보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보다 폭넓은 영역까지 보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의견임.
- 현재 올림픽에서는 운동경기, TV 방송, 이벤트 등 각각의 사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험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거대 사업이 될 것이라는 분석임.
  - 히스콕(Hiscox)의 글로벌시장 전문가인 데이비드 브루스(David Bruce)에 따르면, 올림픽 보험에 대한 수요는 이 같은 다양한 사업형태로 인해 회사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최기구나 후원조직, 광고단체, TV 네트워크 등 모두가 우선적으로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브루스는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은 세상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최대 행사라며, 이러한 부분에도 보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덧붙임.
- 브루스는 베스트워크 유럽(BestWeek Europe)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함.
  - 이는 구체적으로 고객들이 우려하는 리스크가 테러냐, 전쟁이냐, 전염성 있는 질병이냐 등의 우려 요인에 따라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벌써부터 2012년 영국에서 개최될 올림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으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조기에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임.

(Insurancenewsnet, 8/21)

##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 일본 지진보험 가입률 전국 평균 44%

- 일본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21일 2007년도 지진보험의 부대비율이 전국적으로 평균 44.0%로 전년대비 2.3%p 상승하였다고 발표
  - 지진보험의 부대비율은 화재보험의 신규 계약자가 동시에 지진보험에도 가입한 비율을 나타냄.
  - 일본의 지진보험은 지진, 분화, 해일에 의한 건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화재보험에 부대하여 판매
  - 일본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진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진보험 부대비율이 2003년부터 5년 연속 상승하는 추세임.
  
- 지역별로는 남해지진이 발생했던 코치현에서 72.2%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이치현 62.6%, 미야기현 61.5%이며, 10개현이 50%를 상회하였고 미야기현은 처음으로 60%를 상회
  -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대지진 발생 후에 지진보험의 가입율이 상승한다」고 언급
  - 작년 7월 바다지진이 발생한 니가타현도 5.3%p 증가
  
- 지진피해는 피해규모가 큰 관계로 주택 피해를 보상하는 통상적인 화재보험만으로는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은 지진보험에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
  
- 손해보험협회는 “지진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찾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중요한 보험이다. 작년부터는 보험료의 할인 제도가 확충되어 보험료의 일정금액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제도가 창설되었다”고 발표

(FujiSankei Busines / 8/22)

## □ 미츠이스미토모해상, 베트남에서 단독으로 손해보험회사 설립

-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화재보험은 21일 베트남에 100% 출자의 손해보험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
- 베트남 재무성으로부터 빠르면 한 달 이내에 설립 인가를 취득할 전망
  - 보험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베트남에서 사업규모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 미츠이스미토모의 계획
  - 일본의 손해보험회사가 베트남에 100%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처음
- 설립하는 베트남 법인은 「MSIG인슈어런스베트남」으로 자본금 규모는 3000억 베트남 동(VND)(약 19억 2000만엔)으로 예상
  - 본사는 하노이에 두어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을 중심으로 판매할 계획
  -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2010년까지 8억 5000만엔의 수입보험료를 거둘 계획
-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베트남의 대형 국영 손해보험회사인 바오민 보험회사, 손해보험재팬 등과 합작으로 손해보험회사 「유나이티드인슈어런스베트남(UIC)」을 1997년에 설립한 바 있음.
  -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이 회사에 23.3% 출자했었으나, 합작 형태로는 신속한 사업 전개를 할 수 없고, 고객 기업의 정보 관리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작년 5월에 전액 출자한 현지 보험회사 법인의 설립 추진을 결정하고 11월 베트남의 감독당국에 인가 신청을 제출
  -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현지 법인설립 후에 UIC사의 주식을 처분할 계획

(FujiSankei Business / 8/22)

## □ 상위 4개 생보사 실적 감소는 사망보장 니즈 감소 탓

- 일본에서 영업 중인 니혼(日本)생명보험 상위 4개 생명보험회사의 2008년 6월말 실적을 볼 때 사망보장의 보유계약고는 2008년 3월말과 비교해서 4개사 모두 감소
  - 보험금 부당 미지급 문제에 의한 영향은 줄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사망보장 니즈의 저하가 계속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
- 보유계약고는 2008년 3월말과 비교해서 각사에서 1.2-1.9%의 감소
  - 사망보험의 기계약자가 의료보험 등 생존 중의 생활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확산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추정
- 생명보험회사들은 「저출산에 의한 시장의 축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계약고의 감소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 신규계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험료를 1년 단위로 계산한 보유계약 연환산 보험료도 2008년 3월말과 비교해서 모든 회사에서 감소
  - 다만, 2008년 3월말과 비교해서 각사에서 0.2-0.8% 감소하고 감소폭은 보유계약고와 비교해서 낮아지고 있음.
-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이 자회사인 다이이치프런티어생명보험에 의한 방카슈랑스 판매에서 연금보험의 판매가 호조였던 것 외 매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보험도 의료보험 등 제3보험 상품의 판매가 호조
-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솔벤시 마진(solvency margin) 비율은 2008년 3월말과 비교해서 4개사 모두 상승
  - 전년도말보다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주식의 미실현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

(FujiSankei Business / 8/19)

##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 중국, 보험업 개정안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

-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난 8월 1일 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원칙적인 통과결정을 내렸으며, 이로써 새로 시행될 보험법은 정식 공표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라 전함.
  - 금번 개정된 보험법은 기존 보험법 제13조에 대한 수정으로 이에 대해 법학자들은 개정안이 피보험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약자의 편에서 해석할 여지를 사전 봉쇄함으로써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함.
- 현행 보험법 제13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된 반면, 개정 보험법은 모두 3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정 보험법에 추가된 제3항은 ‘적법절차에 따라 성립된 보험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대해 부가조건 혹은 부가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는 내용임.
  -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가조건’ 혹은 ‘부가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보험회사가 보험효력 발생 시점을 ‘보험증서 수령시’로 명시하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사고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임.
- 개정 보험법 제13조 3항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매우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여기기 쉽다고 전함.
  - 이에 법학자들은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실제 적용에 있어 보험가입자와 보험업계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함.

(중국보험보, 8/18)

## □ 중국 보감위, ‘방카슈랑스 성장속도 과도하게 빠르다’ 주의 요망

- 중국 보감위는 지난 8월 19일 지방의 보험감독국 책임자들을 베이징(北京)으로 불러들여 정기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날인 20일에는 생보사, 건강보험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보험 업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힘.
  - 연이어 개최된 두 회의에서 보감위 주석비서 천원후이(陳文輝)는 중국 생명보험산업 발전상황과 잠재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감위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감위는 중국 내 보험회사가 방카슈랑스를 통해 투자형 단기보험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해, 이익구조가 취약한 방카슈랑스 상품은 자본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조기에 증시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대대적인 해약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음.
  - 일단 해약 사태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천문학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보감위의 추측임.
- 금년 1~7월말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6.7% 증가하면서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보험상품 특성상 판매 1차 년도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해약사태까지 겹치게 될 경우, 보험사는 자기가 판매한 만큼 고스란히 리스크로 다시 안을 수도 있다고 전함.
- 따라서, 보감위가 금번 회의를 통해 급격히 달아오른 방카슈랑스 열기를 식히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전함.

(상해증권보, 8/22)

##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8.15(금)	08.8.22(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85	5.81	-0.04
	美 10년국채	4.03	3.84	3.83	-0.01
	英 10년국채	4.51	4.57	4.57	0.00
	日 10년국채	1.51	1.47	1.45	-0.02
주가	韓 KOSPI	1,897.13	1,572.19	1,496.91	-4.8%
	韓 KOSDAQ	704.23	522.81	483.47	-7.5%
	美 DJIA	13,264.82	11,659.90	11,628.06	-0.3%
	美 Nasdaq	2,652.28	2,452.52	2,414.71	-1.5%
	英 FTSE100	6,456.90	5,454.80	5,505.60	0.9%
	獨 DAX30	8,067.32	6,446.02	6,342.42	-1.6%
	佛 CAC40	5,614.08	4,453.62	4,400.45	-1.2%
	日 Nikkei225	15,307.78	13,019.40	12,666.04	-2.7%
	中 상해종합	5,261.56	2,450.61	2,405.22	-1.9%
	대만 가권	8,506.28	7,196.50	6,911.64	-4.0%
	홍콩 항셱	27,812.65	21,160.60	20,392.06	-3.6%
환율	원/달러	938.20	1,039.80	1,061.90	22.10
	원/100엔	833.33	941.00	968.86	27.86
	엔/달러	112.58	110.47	109.95	-0.52
	달러/유로	1.4722	1.4730	1.4812	0.01
	위안/달러	7.3041	6.8700	6.8339	-0.04